

1. 남한의 이명준

일주일 후, 명준은 두 번째 S서 형사실에 앉아 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다. 명준을 맡은 형사 옆에 앉은, 얼굴이 바둑판같이 각이 진 친구가 명준을 흘끗 쳐다보더니 묻는다.

"뭐야?"

"이형도 씨 자제 분이야."

"이형도?"

"이형도가 누구야?"

다음다음 자리에 앉았던 친구도 서류에서 눈길을 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끼여든다.

"박현영이 밑에서 남로당을 하다가 이북으로 뺑소니친 새끼야."

저편 자리에서 소리가 난다.

"응 알아. 요사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인가에서 대남 방송에 나오는 놈 말이지?

"그래."

"이 새끼가 그 새끼 새끼란 말이지."

와 웃음이 터진다. 명준은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내려다본다. 아버지 이름이 놀림을 받는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다. 얻어맞고 터지더라도 면접번처럼 취조관하고 단둘인 편이 오히려 나을 성싶다. 여렷의 노리개가 되는 건 더 괴로웠다.

"그래 이 자식은 뭘 하는 놈이야?"

"철학자라네."

"철학? 새끼 꼭 아편쟁이 같은 게 그럴싸하군."

"이런 새끼들 속이란 더 알쏭달쏭한 거야. 내 사찰계 근무 경험으로, 극렬한 빨갱이들 가운데는 이 새끼 같은 것들이 꽤 많아. 보기는 벼려지도 무서워 할 것 같지. 이런 일이 있었어……"

그자는 명준을 젖혀 놓고 동료 쪽으로 돌아앉아서 겪은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명준은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한 번 놀란다. 그는 자기 전성 시대라면서, 일제 때 특고 형사 시절에 좌익을 다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특고가 마치 한국 경찰의 전신이나 되

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투에는 일제 시대에, 그 학교의 전신이던 학교에 다닌 선배가, 그 소위 후배들을 앞에 놓고 옛날, 운동으로 날리던 얘기에 신명이 났을 때의 도도함이 있다. 그의 옛날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명준은 자기가 마치 일본 경찰의 특고 형사실에 왕 있는 듯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형사의 얘기는 그토록 지난날과 지금을 뒤섞고 있다. 빨갱이 잡는 걸 가지고 볼 때 지금이나 일본시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완연하다. 일제는 반공이다, 우리도 반공이다. 그러므로 둘은 같다라는 삼단논법. 그는 옛날은 좋았다고 한다. 옛날엔 세도가 당당했다고 한다. 명준은 차츰 몰라진다. 옛날이 좋았다? 이조 시대란 말인가? 고려? 신라? 삼한? 혹은 에덴 시대? 아니 이자가 그런 고전적인 회고 취미를 가졌을 리 없다. 그건 일본 시대를 말하는 소리다. 20분이나 잘 되게 그를 버려뒀다가 그제야 돌아앉는다.

"잘 생각해 봤나?"

"네?"

"이 새끼 첫마디에 알아듣는 적이 없어. 대학에서 철학까지 공부하는 새끼래 왜 그리 눈치가 없어?"

"....."

"순순히 불 생각이 들었느냔 말이야."

명준은 잠깐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똑바로 얼굴을 쳐들면서 입을 열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네, 끝까지 들어 주세요…… 잘못 아시는 모양인데 제 부친은 집에 들어서는 통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분이었고, 월북하셨을 때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어머니나 저나 그런 줄을 몰랐어요. 전에도 집을 비우시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변성제 씨 댁에 와서 지금까지 지냈고 아버지 소식은 알래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변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형사는 그의 말을 내내 들어주고 있지는 않는다. 성냥개비를 가지고 귀를 후비기도 하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콧구멍을 후비기도 하면서, 딴전을 부리다가 변성제란 이름이 나왔을 때 불쑥 한마디 던진다.

"변선생? 변선생은 거기까지는 다짐할 수 없다는 거야."

명준은 가슴이 콕 막힌다. 어렴풋이 나마 그 이름이 미칠 수 있는 힘을 짐작하고서 한, 명준의 그 말만은 놓치지 않고 대뜸 쏘아붙이는 형사의 투는, 흘려듣는 듯하면서 대목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다짐이다. 능글맞은 늑대 한 마리를 보는 듯하다. 변선생이 뭐라 한 걸 가지고 넘겨짚는 수작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잇는다.

"물론 한집에 사는 식구라도 일거일동을 모조리 알 수야 없겠지만, 저의 생활이란 간단합니다. 제가 제일 접촉이 많은 곳이래야 결국 학교일 테고, 그밖에 교우관계도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은 죄없이 추궁 받는 건 정말 괴롭습니다."

'일거일동'이니 '접촉'이니 '교우관계'니 하는 이 동네 말이 제 입에서 술술 나온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명준은 잠깐 생각했다.

"별로 없습니다."

"뭐? 한 사람이다 두 대란 말야."

"글쎄요, 특별히 친하단 사람은 …… 변태식이 그중……"

"변태식이?"

"뭣 하는 사람이야?"

"변선생 자제 분입니다."

"아따, 요 새끼 노는 꼴 봐라."

옆자리에서 거들 듯 흥 소리가 난다.

"변선생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단 말이지? 그따위 잔꾀 부리지 말어. 하긴 내 경험으로 두 너처럼 상판때기가 샌님처럼 생긴 게 곧잘 사람을 속이는 법이야. 내가 아직 경험이 없을 땐 그 수에 잘 넘어갔지.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 너 같은 놈을 한두 명 겪은 줄 알아? 뱃속까지 환하다, 이 째끼야."

그러면 어쩌자는 말일까. 그의 목을 죄는 손은 웬걸 끈질기다. 무서움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렷한 모습을 띤다.

2. 월북한 이명준

월북한 지 반년이 지난 이듬해 봄, 명준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저를 저주하면서, 이제 나는 무얼 해야 하나? 무쇠 티끌이 섞인 것보다 더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하숙집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고 있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 선전 책임자인 그의 부친은, 모란봉 극장에 가까운 적산집에, 새 아내와 살고 있었다. 평안도 사투리가 그대로 구수한 '조선의 딸'이었다. 예 그대로인 조선 여자의 본보기, 그저 여자였다. 머릿수건을 쓰고 아버지가 벗어 놓은 양말을 행구고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명준은 끔한 꿀을 본 듯 얼굴을 돌렸다. 꽃나무가 가꾸어진 뜰 안. 30쪽 전등 아래 신문지로 덮어 놓은 밥상을 지키고 앉은 명준이 나이 또래의 의붓어머니. 그것은 지옥이었다. 명준이 그 속에서 도망해 나온, 평범이란 이름의 진구령. 그 풍경은 맥빠진 월급쟁이 집안의 저녁 한때일망정, 반일 투사이며, 이름 있는 코뮤니스트였던 아버지의 터전일 수는 없었다. 부친의 재혼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처럼, 믿음을 위해서 젊음을 어두운 골목과 낯선 땅 벌판에서 보낸, 어느 여류 코뮤니스트와 맺어졌다 면, 그런 의붓어머니에게 어리광까지도 피웠을 거다.

그러나 이 여자. 그를 도련님 받들 듯하는 이 조선의 딸. 도대체 어디에 혁명이 있단 말인가. 일류 코뮤니스트의 집에서, 중류 부르주아의 그것 같은 차분함이 도사리고 있는 바에야, 혁명의 싱싱한 서슬이 어디 있단 말일까. 부친은 아들을 비키듯 했다. 난봉꾼 아들을 피하는 마음 약한 아버지. 구역질이 나는 부르주아 집안의 나날이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나이가, 자기 아내와 철든 아이들에게 보이는 너그러움.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죄를 밖에서 지었다는 건가. 혁명을 판다는 죄, 그걸 스스로 모를 리 없는 아버지가 계면쩍어하는 몸가짐일 것이다. 신문사 일도 손에 잡혀 가고,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공기의 이름 새도 바닥이 드러나게 쪘 된 이른 봄 어느 날 월북한 이래로 그들 부자는 처음 부딪쳤다. 명준은 터지는 마음을 그대로 쏟았다.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나랍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 나이에 아버지 없어서 못 살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여기서 활약하신다고 그들이 저를 죽이기야 했겠습니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보람 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녘에 있을 땐,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아니, 있긴 해도 그건 너무나 더럽고 처참한 광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거기서 탈출하신 건 옳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습니다.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뭐니까? 이 무거운 공기. 어디서 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짓눌려 나옵니까? 인민이라구요?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권을 세운 기쁨으로 넘치는 웃음을 얼굴에 지닌 그런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티유를 부수던 날의 프랑스 인민처럼 셔츠를 찢어서 공화국 만세를 부르던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프랑스 혁명 해설 기사를 썼다가, 편집장에게 욕을 먹고, 직장 세포에서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라구, 인민의 혁명이 아니라구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인민들의 가슴에서 끓던 피, 그 붉은 심장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라구요? 오,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 붉은 심장의 설레임,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와 자본주의자들을 가르는 단 하나의 것입니다. 퍼센티지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생산지수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인민 경제 계획의 초과 달성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속에서 불타야 할 자랑스러운 정열,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이남에는 그런 정열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비루한 욕망과, 탈을 쓴 권세욕과, 그리고 섹스뿐이었습니다. 서양에 가서 소위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놈들이 돌아와서는, 자기 몇 대조가 무슨 판서 무슨 참판을 지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인민의 등에 올라앉아 외국에서 맞춘 아른거리는 구둣발로 그들의 배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도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본 놈들 밑에서 벼슬을 지내고 아버지 같은 애국자를 잡아 죽이던 놈들이 무슨 국장, 무슨 처장, 무슨 청장 자리에 앉아서 인민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사회는 백귀야행(百鬼夜行)하는 도시 알 수 없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섹스와 재즈와 그림 속의 미국 여배우의 젖가슴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재빨리 외국인을 친지로 삼아서 외국으로 내빼고 있었습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그 험한 사회의 혼탁에서 잠시 몸을 빼고, 아름다운 아내와 쪼들리지 않을 만큼 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간판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 것입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실팍한 뼈대를 이루는, 약사 뼈른 수재들 말입니다. 이도 저도 못 하는 우리 같은 것은, 철학이니 예술이니 하는, 19세기 구라파의 찬란한 옛날 얘기책을 뒤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남조선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심장의 소유자들입니다. 젊은 사람 치고, 이상주의적인 사회 개량의 정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남조선이라는 이상한, 참으로 이상한 풍토 속에서는 움직일 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런 풍토 속에서 성격적인 약점이 점점 커지더군요. 저는 새로운 풍토로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북했습니다. 어리광을 피우려는 저의 손길을, 위대한 인민공화국은 매정스레 뿌리치더군요. 편집장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라고요. 아하, 당은 저더러는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면 일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란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 숨지를 테니, 너희들은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말하기를' '일찍이 위대한 스탈린 동무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위대한 동무들에 의하여, 일찍이 말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제 아무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아, 이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어쩌다 이 꼴이 된 겁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현실의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적용되는 단 한 가지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란, 정확하게는, 그가 자기 시대를 분석한 그의 저술 속에서 쓴, 방법론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론 속에 엉켜 있는 방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방법론의 창시자조차도 반드시는 정확하달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계승자인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해석권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동무들도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었을 리가 없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된 진리만을 믿은 게 아니고 진리는 더 고치는 것이 용서 안 될 만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태도까지 믿은 것입니다. 수많은 고결한 심장의 소유자들이, 이런 공화국을 만들려고, 중세기의 순교자들보다 더 거룩한 죽음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들의 피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 누군가가 위대한 선구자들의 피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북한 아래 일반 소시민이나 노동자 농민들까지도 어떤 생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들은 굳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 다닙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구호를 외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이란 그들에겐 양떼들입니다. 그들은 인민의 그러한 부분만을 써먹습니다. 인민을 타락시킨 것은 그들입니다. 양들과 개들을 데리고 위대한 김일성 동무는 인민공화국의 수상이라? 하하하....."

3. 전쟁 중의 이명준

"왜 이런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고독해서 그랬겠지."

"누가?"

"김일성 동지지."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한참 만에, 이쪽으로 돌아누우면서, 명준의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자기가 외롭다고 남을 이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권리? 권리가 있어서만 움직인다면 별써 천당이 왔을 거야."

"김일성 동무는 애인이 없었던가 보지요?"

"있어도 신통치 않았겠지."

"이 동무가 수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나 같으면 이따위 바보 짓은 안 해. 전쟁 따윈 안 해. 나라면 이런 내각 명령을 내겠어. 무릇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삶을 사랑하는 의무를 진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민의 적이며, 자본가의 개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스파이다. 누구를 묻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이야."

"하하하."

그녀는 남자처럼 웃었다. 그러면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명준의 목을 마구 흔들어 댔다.

"그런 시인을 수상으로 가진 인민들만 봉변이군요."

"시인? 아 그럼 그 과학적인 친구들이 앉아서 한다는 게 요꼴인가? 아니야."

4. 중립국을 택한 이명준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 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원편에서 들어와서 바른 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도요. 짚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 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 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괴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 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 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세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 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사람이, 타향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 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 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징긋 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별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무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깜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돌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 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